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 주요 내용 - 2023.03.23.(목요일)

-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제주와 부산에서 올해 최초 확인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주의 행동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될 시

[경보]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작은빨간집모기>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 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함

3월 22일, 제주도에서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의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작지만 무시무시한 작은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흡혈 활동을 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입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다시 사람을 물어 감염시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 입니다!**

일본뇌염 감염 예방수칙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 입기



피부가
노출된 곳에는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수 등
향기 제품
사용 자제하기

모기에 물리면 무조건 일본뇌염?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증상을 보이고,
유증상자의 경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필수!



구분	접종 권장 기준	
불활성화 백신	총 5회 접종	· 1차-3차 (생후 12-35개월)
		· 4차 (만 6세)
		· 5차 (만 12세)
생백신	총 2회 접종	· 1차-2차 (생후 12-35개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2023. 4. 4.

익 산 솜 리 유 치 원 장